

# 인삼을 활용한 문화관광콘텐츠 개발전략

Strategy Development for Cultural Tourism Contents account to Ginseng

이익수

청주대학교

Yk-Soo Lee(tour8119@cju.ac.kr)

## 요약

관광콘텐츠는 관광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주목받지 못하고 있어, 인삼을 활용한 문화관광콘텐츠 개발 전략을 살펴보았다.

콘텐츠 개발의 기본방향은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웰빙적인 요소와 고부가가치 상품개발이며, 개발 전략은 대표적인 웰빙상품으로 스토리를 동반해야 하며, 상품을 위한 스토리가 아니라 다목적성의 성격을 떨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야 하며, 최종 상품형태를 고려하여, 실현가능한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이익 및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 중심어 : | 문화관광콘텐츠 | 인삼 | 전략개발 |

## Abstract

In spite of the element that tourism contents are importance for tourism activation attract attention that I took the culture sightseeing contents development strategy that utilized Ginseng.

A basic course of contents development is the element which is well-being to be able to let you increase health and high value-added article development. A development strategy must be accompanied with a story in representative well-being and must develop the contents that can be full of character of multipurpose not a story for an article and in consideration of a last article form and develop feasible contents. Lastly, direct profit and participation must be guaranteed by local inhabitants.

■ keyword : | Culture Tourism Contents | Ginseng | Strategy Development |

## I. 서 론

### 1. 문제제기 및 연구의 목적

#### 1.1 문제의 제기

많은 미래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듯이 향후의 세계는 문화가 이끌어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듯이 문화는 지구촌의 절대 과제가 되어 세계인의 화합은 물론, 고

부가가치산업의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다[1]. 이러한 현상은 관광객들의 관광지 선택 및 관광목적에도 빠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현대의 관광은 가족 중심적이고 실제 체험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자신의 개별적인 호기심이나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일반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다[2].

특히 현대의 문화관광은 단순히 보고 즐기는 정적 인 관광에서 벗어나 직접 참여하여 즐기는 동적인 문화관광 형태로 바뀌었고, 향후의 문화관광 형태는 자연탐방에서 문화관광으로 변화해 가고 있다[3].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우리나라의 여러 지역에서도 각 지역의 고유문화를 활용한 문화관광상품 및 문화관광지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민간 연구기관 및 기업체에서도 이러한 문화관광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문화관광에 관한 연구는 크게 지역전통문화 및 불교문화 등 우리의 전통적 생활 및 종교문화를 활용한 문화관광자원화 연구와 지역 특산물 및 지역관광지의 문화관광지화에 대한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문화관광자원화 연구는 정환영(2004), 유기준(2004), 신상구(2005), 김양웅(2005), 남재경(2005), 박인기(2006), 김홍섭(2006) 등이 있으며, 문화관광지화에 관한 연구는 조명환외(2004), 김정문외(2006), 양봉석(2007), 노영순(2007) 등이 있다[4-13].

하지만 이러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관광의 외적인 측면, 즉 하드웨어에 편중된 연구경향을 보여주고 있어, 관광의 소프트웨어인 문화관광콘텐츠에 관련된 연구는 매우 부족한 형편이다. 비록 개별연구들을 통해 지역문화의 관광콘텐츠화에 대한 연구는 미미하나마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문화관광콘텐츠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미래의 관광행태를 예측할 때 가장 먼저 화두에 떠오르고 있는 문화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관광콘텐츠 개발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시점이며,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미지로 자리잡고 있는 인삼을 활용한 문화관광콘텐츠 개발에 대해 연구해보고자 한다.

##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이미지로 자리잡고 있는 인삼을 활용한 문화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인삼을 중평문화체를 대상으

로 인삼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이미지를 바탕으로 중평인삼이 개발할 수 있는 문화관광콘텐츠를 발굴함으로써, 지역의 문화관광콘텐츠를 개발함과 동시에,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여러 문화 및 이미지를 활용한 문화관광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관광산업계가 가지고 있는 가장 취약점 중의 하나인 관광소재발굴과 더불어 이 소재를 활용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2.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인삼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이미지는 무엇이며, 이는 문화관광콘텐츠화 시킬 수 있는가?

둘째, 인삼을 중평문화체를 활용한 문화관광콘텐츠의 개발이 가능한가?

## II. 연구방법

### 1. 표본의 선정 및 조사방법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개념	구분	번호(명)	백분율(%)
성별	남성 여성	119 67	64.0 39.0
연령	30세 이하 30세-39세 40세-49세 50세-59세 60세 이상	45 70 41 20 5	24.2 37.6 22.0 10.8 2.7
교육 정도	고졸 이하 대학 이하 대학원 이상	69 97 20	37.0 52.2 10.8
평균 소득	100만원 이하 101-200만원 201-300만원 301-400만원 501만원 이상	18 68 59 31 10	9.7 36.6 31.7 16.7 5.4
직업	농·어업 자영업 공무원 전문직 사무직 학생 기타	14 28 61 15 16 28 24	7.5 15.1 32.8 8.1 8.6 15.1 12.9

조사를 위한 설문대상 집단은 비교분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중평군의 재래시장을 방문한 이용객들을 선정하였다. 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설문조사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은 2007년 인삼골 증평문화제를 방문한 주민과 공무원들을 모집단으로 설정한 후 집락무선표집법(cluster random sampling)을 이용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이와 같은 표집방법으로 총 200부를 추출하였으나, 회수된 설문지 중 무응답 했거나 분석에 사용하기 곤란한 14개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사용된 자료는 186개로 유효분석율은 93.0%를 보였다. 조사된 표집의 구체적인 개인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 2.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

표 2. 측정 변수와 방법

측정 변수		측정 항목	측정방법
인삼 인식	일반인식	인삼 연령 가격 원산지 복용성	5점 등간척도
	상품성	대표성 부기 가치 품질 대중성 조합성 활용성	5점 등간척도
	약효	건강 피로회복 정력 체력증진 미용 및 다이어트 효과성	5점 등간척도
증평인삼 인식	일반인식	가격 대표성 다양성	5점 등간척도
	상품성	디자인 구입용이성 맛과 향기 다양성 소규모 구매	5점 등간척도
	약효	약효 건강에 이로움 피로회복	5점 등간척도
관광영향		관광산업 발전 이미지 향상 그룹 활성화	5점 등간척도

인삼에 대한 인식은 중앙대학교 인삼산업연구센터에서 실시한 인삼제품 소비행태 조사에 사용된 변수를 기초로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였다. 이를 기초로 본 조사에 사용된 인삼인식에 대한 변수

는 총 16개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인식부문이 4개 항목, 상품성부문이 6개 항목, 인삼의 약효와 관련된 부문이 6개 항목으로 추출되었다.

이러한 인삼에 대한 인식조사표를 기초로 증평인삼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11개 항목을 개발하였으며, 이러한 문화관광콘텐츠 개발이 지역의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변수를 설정하였다. 측정을 위한 변수와 방법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 III. 연구 결과 및 시사점

### 1. 연구 결과

#### 1.1 기초분석

먼저 우리나라 인삼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정도를 16개 항목으로 평가한 결과 [표 3]과 같이 나타났다. 각 항목에 대한 평균값은 ‘인삼의 건강 유지’에 좋다라는 항목이 가장 높은 4.22점을 나타냈으며, 국내산 인삼의 품질이 최상품이라는 항목, ‘피로회복과 체력 증진의 우수성’ 항목 등이 4.0이상을 받아 높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다른 항목에서도 높은 평균값을 나타내 전반적으로 한국인삼의 우수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아울러 증평 인삼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정도를 11개 항목으로 평가한 결과 [표 4]와 같이 나타났다. 각 항목에 대한 평균값은 건강에 좋다라는 항목이 가장 높은 3.94점을 나타냈으며, 피로회복에 좋다라는 항목이 3.90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다른 항목에서도 비교적 높은 평균값을 나타내 전반적으로 증평인삼에 대한 인식정도는 대체로 우수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관광콘텐츠 개발이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평가한 결과 [표 5]와 같이 나타났다. 각 항목에 대한 평균값은 지역의 이미지를 향상시킬 것이라는 항목이 가장 높은 3.98점을 나타냈으며, 다른 항목에서도 비교적 높은 평균값을 나타내 전반적으로 문화관광콘텐츠 개발이 관광산업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우리나라 인삼에 대한 인식

구분	평균	표준편차
인삼의 연근이 오래되면 풀수록 약효가 더 좋다.	3.76	.905
년근이 오래된 인삼일수록 비싸다.	3.91	.836
인삼의 약효는 원산지에 따라 다르다.	3.77	.824
열이 있는 사람은 좋지 않다.	3.73	.914
한국의 대표적인 상품이다.	3.98	.785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이다.	4.03	.735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인삼의 품질이 가장 좋다.	4.19	.659
인삼은 건강에 좋다.	4.22	.623
인삼은 피로회복에 좋다.	4.08	.691
정력에 좋다.	3.72	.792
체력증진에 좋다.	4.05	.715
미용과 다이어트에 좋다.	3.69	.771
선물용품으로 적당하다.	3.96	.733
다른 건강식품과 조합이 용이하다.	3.80	.719
인삼은 신약개발에 많이 활용된다.	3.85	.816
인삼은 타 건강식품보다 가격에 비해 효과가 높다.	3.73	.809

표 4. 증평인삼에 대한 인식

구분	평균	표준편차
약효가 뛰어나다.	3.76	.66
포장 디자인이 좋다.	3.52	.65
오래된 제품이 더 좋다.	3.71	.76
구입이 용이하다.	3.58	.79
맛과 향기가 좋다.	3.64	.72
제품이 다양하지 않다.	3.26	.80
소규모 포장이 필요하다.	3.47	.83
너무 비싸다.	3.33	.80
증평을 대표하는 상품이다.	3.78	.78
건강에 좋다.	3.94	.69
피로회복에 좋다.	3.90	.66

표 5. 문화관광콘텐츠 개발이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

구분	평균	표준편차
지역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3.70	.81
지역의 이미지를 향상시킬 것이다.	3.98	2.74
외국과의 교류가 활성화 될 것이다.	3.22	.86

## 1.2 분산분석

인삼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문화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인삼인식에 대한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t-test 및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인삼인식의 차이에 대한 분석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 6]에서 보는 것과 같이 성별에 따른 우리나라 인삼인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유의수준  $p<0.05$

에서 t-test를 실시한 결과, 일반인식에서 집단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유의수준  $p<0.05$ 에서 성별에 따른 증평인삼에 대한 인식정도의 집단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에서 보는 것과 같이 연령에 따른 우리나라 인삼인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유의수준  $p<0.05$ 에서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인삼에 대한 일반인식에서 집단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성별에 따른 우리나라 인삼인식의 차이

항목	구분	n	평균(S.D.)	F 값	t 값
일반인식	남	119	3.84±0.55	6.910	.009
	여	67	3.63±0.57		
상품성	남	119	3.96±0.83	0.054	.816
	여	67	3.94±0.56		
약효성	남	119	3.94±0.51	1.362	.245
	여	67	3.85±0.55		

표 7. 연령에 따른 우리나라 인삼인식의 차이

항목	구분	n	평균(S.D.)	F 값	P 값	post-hoc
일반인식	30세 이하(a)	45	3.71±0.60	2.791	.027	a,b,c,d,e
	31~39세(b)	70	3.66±0.53			
	40~49세(c)	41	3.93±0.56			
	50~59세(d)	20	3.86±0.42			
	60세 이상(e)	5	4.16±0.68			
상품성	30세 이하	45	3.79±0.68	1.282	.278	
	31~39세	70	3.96±0.50			
	40~49세	41	4.13±1.15			
	50~59세	20	3.96±0.72			
	60세 이상	5	4.02±0.80			
약효성	30세 이하	45	3.78±0.60	0.862	.488	
	31~39세	70	3.93±0.51			
	40~49세	41	3.95±0.52			
	50~59세	20	3.87±0.48			
	60세 이상	5	4.02±0.49			

[표 8]에서 보는 것과 같이 연령에 따른 증평 인삼인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유의수준  $p<0.05$ 에서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인삼에 대한 일반인식과 약효성에서 집단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학력에 따른 우리나라 인삼인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유의수준  $p<0.05$ 에서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인삼에 대한 일반인식에서 집단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증평인삼에 대한 학력별 인식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연령에 따른 증평 인삼인식의 차이

항목	구분	n	평균(S.D.)	F 값	P 값	post-hoc
일반인식	30세 이하(a)	45	3.48±0.56	3.893	.005	a,b< c, e< d
	31~39세(b)	70	3.48±0.52			
	40~49세(c)	41	3.82±0.57			
	50~59세(d)	20	3.74±0.51			
	60세 이상(e)	5	3.83±0.43			
상품성	30세 이하	45	3.38±0.57	1.389	.239	
	31~39세	70	3.47±0.46			
	40~49세	41	3.61±0.62			
	50~59세	20	3.48±0.51			
	60세 이상	5	3.75±0.75			
약효성	30세 이하(a)	45	3.69±0.54	4.436	.002	a,b,d< c< e
	31~39세(b)	70	3.81±0.60			
	40~49세(c)	41	4.10±0.57			
	50~59세(d)	20	3.90±0.42			
	60세 이상(e)	5	4.40±0.54			

표 9. 학력에 따른 우리나라 인삼인식의 차이

항목	구분	n	평균(S.D.)	F 값	P 값	post-hoc
일반인식	고졸이하(a)	69	3.89±0.42	2.116	.123	c<a,b
	대졸이하(b)	97	3.72±0.60			
	대학원이상(c)	20	3.70±0.59			
상품성	고졸이하	69	4.16±0.96	3.518	.031	
	대졸이하	97	3.92±0.55			
	대학원이상	20	3.73±0.82			
약효성	고졸이하	69	3.97±0.54	0.915	.402	
	대졸이하	97	3.86±0.53			
	대학원이상	20	3.93±0.52			

### 1.3 회귀분석

인삼을 활용한 문화관광콘텐츠 개발을 위해 증평인삼에 대한 인식이 관광영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회귀선은 전체의 13.4%를 설명하고 있으며, 변량분석 모델검증(F값)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유의한 것(p<.05)으로 나타났다. 관광영향에 영향을 미치는 증평인삼의 일반적 인식을 살펴보면, 관광발전과 교류활성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 이미지 향상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회귀선은 전체의 11.5%를 설명하고 있으며, 변량분석 모델검증(F값)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유의한 것(p<.05)으로 나타났다. 관광영향에 영향을 미치는 증평인삼의 상품성인식을 살펴보면, 관광발전과 교류활성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 이미지 향상에

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회귀선은 전체의 8.4%를 설명하고 있으며, 변량분석 모델검증(F값)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유의한 것(p<.05)으로 나타났다. 관광영향에 영향을 미치는 증평인삼의 약효성인식을 살펴보면, 관광발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 이미지 향상과 교류활성화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증평인삼에 대한 일반적 인식이 관광영향에 미치는 영향

변인	기술기(b)	표준오차	$\beta$	t값
상수	2.617	.191		13.705***
관광발전에 기여	.152	.049	.218	3.094***
지역 이미지 향상	.182	.013	-.091	.168
교류 활성화	.150	.046	.230	.001**

R<sup>2</sup> = .134, F = 10.566\*\*\*

\*: p<.05, \*\*: p<.01, \*\*\*: p<.001

표 11. 증평인삼에 대한 상품성 인식이 관광영향에 미치는 영향

변인	기술기(b)	표준오차	$\beta$	t값
상수	2.665	.191		13.943***
관광발전에 기여	.102	.049	.150	2.083*
지역 이미지 향상	.210	.013	-.107	1.582
교류 활성화	.164	.046	.258	3.587***

R<sup>2</sup> = .115, F = 8.698\*\*\*

\*: p<.05, \*\*: p<.01, \*\*\*: p<.001

표 12. 증평인삼에 대한 약효성 인식이 관광영향에 미치는 영향

변인	기술기(b)	표준오차	$\beta$	t값
상수	3.099	.208		14.898***
관광발전에 기여	.212	.053	.291	3.984***
지역 이미지 향상	.103	.014	-.020	0.287
교류 활성화	.367	.050	.003	0.048

R<sup>2</sup> = .084, F = 6.126\*\*

\*: p<.05, \*\*: p<.01, \*\*\*: p<.001

### 3. 시사점

실증분석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우리나라 인삼에 대한 인식은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증평인삼에 대한 인식도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화관광콘텐츠 개발이 관광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는 매우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아울러 우리나라 인삼인식은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평인삼의 경우도 비슷하였다.

중평인삼의 인식이 관광영향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일반적 인식, 상품성, 약효성의 모든 항목들이 관광영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를 통해 다음의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현재 우리나라 인삼인식 및 중평인삼에 대한 인식 중 가장 긍정적인 부문이 건강증진 및 유지와 관련된 부문으로 동일하게 나타난 것을 볼 때 지역의 인삼 이미지를 국가적인 인삼 이미지로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하지만 이러한 인식은 성별, 연령별, 학력별로 다소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세부시장을 잘 구분하여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증평의 지역인삼에 대한 인식이 관광산업 및 관광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향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관광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대표적인 관광상품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 IV. 문화관광콘텐츠 개발전략

### 1. 방향

인삼을 활용한 문화관광콘텐츠 개발전략을 위한 기본방향을 설정해 보면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웰빙적인 요소와 품질유지를 통한 고부가가치 상품의 개발이라는 2가지 방향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건강증진이라는 웰빙적인 요소는 현재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육식문화의 확대로 인한 각종 질병예방 및 건강한 신체유지와 관련한 문화관광콘텐츠를 개발해 할 것이다.

둘째, 품질유지를 통한 고부가가치 상품개발은 증평의 대표성 있는 상품, 각종 편익이 풍부한 상품, 다양성을 확보한 상품이라는 기본적인 방향 설정을 통

해 증평인삼이 국내인삼의 이미지를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 2. 전략

인삼을 활용한 문화관광콘텐츠 개발전략을 위해서 살펴본 방향성을 기초로 수립해 본다면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증평인삼은 건강을 유지시켜 줄 뿐만 아니라 증진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웰빙상품으로 관광을 통해 증평인삼을 관람할 뿐만 아니라, 체험하고, 느끼고, 감동받을 수 있다는 스토리를 동반해야 할 것이다.

둘째, 스토리를 동반한 관광콘텐츠를 개발할 때 단순히 상품을 위한 스토리가 아니라, 지역의 이미지와 교류활성화 등 여러 가지 다목적성의 성격을 뛸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 흔히 말하는 원소스 멀티유즈의 효과성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이는 문화산업에서 흔히 말하는 다목적성 및 다효과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하나의 콘텐츠를 통해 여러 방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콘텐츠를 개발함에 있어 최종적인 상품의 형태를 고려하여, 실현가능한 콘텐츠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너무 미래지향적이거나, 과거지향적일 경우 이를 현실화하는 데는 많은 재무적, 공간적 어려움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 실현할 수 있는 적절한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인삼을 문화관광콘텐츠로 개발하고 지역의 대표적 관광상품으로 성장시킴에 있어 지역의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이익 및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문화관광콘텐츠 개발은 결국 지역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또 하나의 전략이며, 이러한 지역관광산업 활성화는 결국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이미지 향상 등이 최종목적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V. 결 론

본 연구는 인삼을 활용한 문화관광콘텐츠 개발전략

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실증연구를 위하여 인삼을 중평문화재를 방문한 주민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인삼을 활용한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에 대한 기초를 마련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드러난 한계점으로는 첫째,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표본을 중평군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연구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둘째, 연구를 진행한 시점의 상황적 특성으로 인한 외적인 변수를 배제할 수 없었던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규모적인 연구와 함께, 외적변수를 최대한 배제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척대학교 논문집, Vol.39, pp.61-93, 2006.

- [9] 김홍섭, 아산시 지역문화자원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10] 조명환, 양봉석, “문화관광지 개발에 대한 김해시 지역주민의 관광영향지각, 관광태도, 관광지원에 관한 연구”, 관광레저연구, Vol.16, No.2, pp.9-27, 2004.
- [11] 김정문, 정나라, “전통문화관광지의 관광활성화 방안 연구; 순창 전통고추장민속마을을 중심으로”, 한국산림휴양학회지, Vol.10, No.3, pp.21-29, 2006.
- [12] 양봉석, 문화관광지의 관광체험과 고유성, 관광만족의 관계 연구,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 [13] 노영순, 전통민속마을의 문화관광지화에 관한 연구; 하회마을, 와암마을, 낙안읍성마을을 사례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 참 고 문 헌

- [1] 손대현, 지방화시대의 관광개발, 서울 : 일신사, p.42, 1995.
- [2] 유영준, “경주 문화관광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자전거 문화관광을 중심으로”, 지역개발논총, 경주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No.3, p.149, 2000.
- [3] 정환영, “백제문화 콘텐츠의 문화관광 자원화 방안”, 백제문화,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Vol.33, p.249, 2004.
- [4] 유기준, “백제문화콘텐츠와 지역문화축제의 연계 활용 방안 고찰”, 백제문화,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Vol.33, 2004.
- [5] 신상구,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을 통한 영역발전 방안 연구”, 신라학연구, 위덕대학교 신라학 연구소, Vol.9, pp.5-25, 2005.
- [6] 김양웅, “불교문화 콘텐츠 구축현황 및 방향”, 전자불전, 동국대학교 전자불전연구소, Vol.7, pp.97-123, 2005.
- [7] 남재경, 종로지역 문화관광자원 개발 및 보존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8] 박인기, “삼척 지역문화관광과 디자인 경영”, 삼

### 저 자 소 개

이 익 수(Yk-Soo Lee)

종신회원



- 1995년 2월 :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경영학석사)
- 2000년 8월 :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경영학박사)
- 2003년 3월 ~ 현재 : 청주대학교 관광학부 교수

<관심분야> : 관광자원, 문화관광, 문화콘텐츠기획